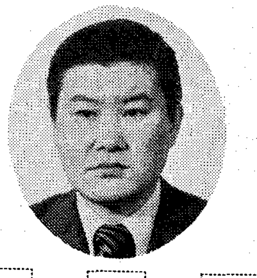
慢性 肝질환, 그 管理대책

개요



金　丁　竜
〈서울医大 내과교수〉

피로감·허약감이 가장흔한 疾狀

〃 〃 〃 〃 〃 〃 〃 〃 〃

충분한 안정과 식이요법이 중요

간에 생기는 질환중 비교적 흔한 것으로서는 지방간,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및 간암 등이 있다.

간염이 6개월 이상 낫지 않고 지속될 때 이를 만성간염이라고 하는데 만성간염은 만성 지속성 간염과 활동성 간염으로 나눌 수 있다. 간경변증은 만성간염이 진행되어 간에 두꺼운 섬유질이 형성되면서 간세포들이 결절을 만들어 간의 형태가 일그러지고 울퉁불퉁하게 굳어진 상태를 말하며 이때 간을 통하는 혈류의 장애가 발생하여 문맥압이 항진되고 이에 따라 복수나 식도 정맥류, 비장의 비대 또는 간성 혼수 등의 합병증이 초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의 원인은 간에 해로운 약물이나 자가면역질환 또는 유전적인 내가 이상등에 의하여 초래될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B형간염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간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만성간염의 임상증상은 개개인에 따라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주 심하여 간부전증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한 증상으로서는 심한 피로감 및 허약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없이 음식 맛이 심하게 떨어지고 소화가 잘 안된다든지 헛배가 부르고 자꾸 메스꺼워지면서 심하면 토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끔 오른쪽 윗배에 뻐근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평소에 즐기던 담배나 커피 맛이 떨어지기도 하며 가끔 열이 나거나 몸살 증상이 있어서 처음에는 감기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성적인 병화가 초래되기도 하는데 남성의 경우다. 사람에 따라서는 얼굴이 흑갈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얼굴에 기미가 끼기도 하며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실핏줄이 돋아보이기도 한다. 목이나 앞가슴등에 피하의 모세혈관이 확장되어서 거미줄모양의 혈관종이 생기게 되고 손바닥에서도 혈관 확장으로 인하여 벌겋게 보이는 경우가에는 앞 가슴의 털이 빠진다거나 유방이 여성과 같이 부풀어 오르고 고환이 위축되며 성욕이 감퇴되기도 한다. 이는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던 여성 호르몬이 간에서 분해 제거되지 않고 오래 남아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경우에는 젖이 나오거나 월경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 있다.

아침에 칫솔질을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는 수도 있는데 이는 간세포가 파괴되어 정상적인 간에서 만들어내던 혈액응고인자가 부족하게 되고 또한 비장기능의 항진으로 혈소판이 감소하게 되어서 출혈성경향이 생기기 때문이다. 병이 심하여 황달이 발생하게 되면 눈흰자위와 피부가 노랗게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전에 소변 색깔이 먼저 진하게 변하기도 한다.

한편 간경변증으로 이행한 환자들에게서도 초기에는 앞서의 만성간염과 증상이 유사하다. 그러나 일부 환자들에서는 간경변증에도 불구하고 전혀 증상이 없이 원기왕성하게 지내는 수도 있다. 간경변증이 말기에 이르면 간세포기능장애와 문맥압항진에 의해 합병증의 여러 증상들이 발생하게 된다. 간세포기능장애는 앞서 말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더욱 심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러한 증상이 전혀 없이 지내다가 갑자기 합병증이 생겨서야 간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합병증은 간의 구도가 파괴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혈액 순환이 안되게 되어 이른바 문맥압이 상승하게 되는데 기인한다. 그 결과로 비장이 커져서 왼쪽 늑골 밑에서 크게 만져지기도 하고 복수가 차서 배가 불어오기도 하며 이로인해 배곱이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동시에 양쪽 다리에 부종이 함께 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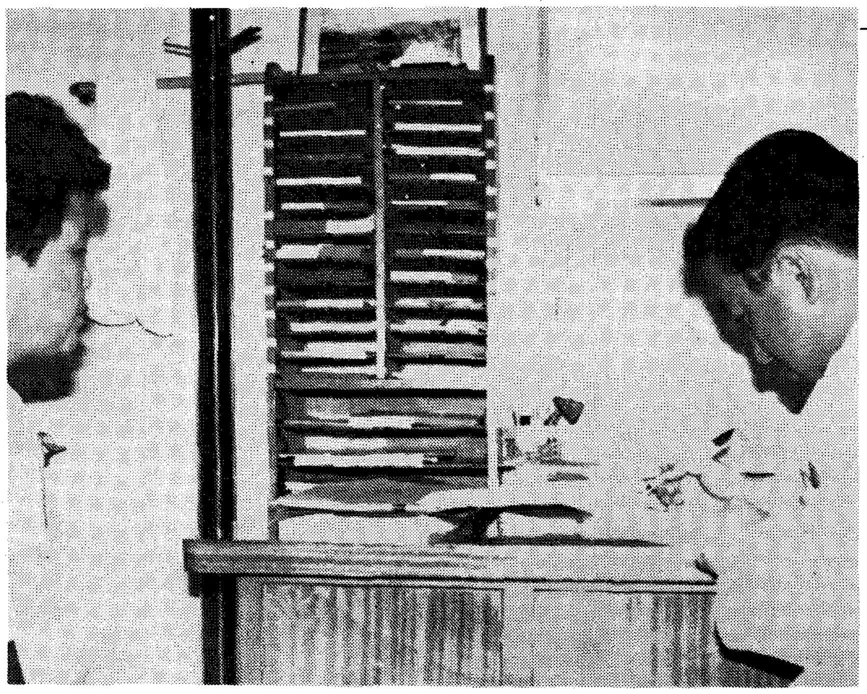
또한 혈류가 막히니까 간 이외의 다른 곳으로 피가 흐르게 되어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혈관이 터져 출혈을 일으키기도 한다. 혈관이 파열되는 가장 위험한 곳은 식도의 정맥으로서 떡이나 엿을 삼키거나 힘주어 대변을 보게될 때 이곳이 터지면서 피를 토하거나 새까만 피똥을 보게 되기도 한다.

장에서 흡수되는 질소 물질은 간에서 처리되어야 몸에 해롭지 않은 성분으로 바뀌어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간경변의 말기에는 간에서 처리도 안될 뿐만 아니라 간을 통과하지도 않고 샛길로 빠져 전신 혈액 속으로 들어가 간성 뇌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간성 뇌증상은 복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이뇨제를 과다하게 사용한다든지 식도 정맥류 파열 등이 상부 위장관 출혈후, 또는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한 후나 지나친 고단백 식사, 그리고 변비가 오래 지속될 때 잘 발생하게 된다.

간 이외의 합병증으로는 당뇨병이나 사구체 신염 등이 잘 동반되며 피부의 발진, 관절염, 혈관염,여드름, 위궤양과 담석 등의 잘 발생한다.

만성 간질환에 대한 임상검사로서는 혈액검사에 의한 간기능검사부터 초음파 검사, 컴퓨터단층 촬영, 자기 공명영상, 혈관조영술과 복강경에 의한 간조직검사에 이르기 까지 여러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검사들은 그 쓰임새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검사가 모든 환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 따라서 한두가지 검사 결과 자체보다는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통하여 이를 참고로 내리게 되는 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면 흔히 사람들은 간기능검사중 혈청의 GOT, GPT수치의 변동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 이 수치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기뻐하거나 실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물론 GOT, GPT치가 높은 것은 일단 나쁜 것이지마는 이 것만 가지고 성급한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이 수치는 만성간염의 경과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것이며 간경변증이 심한 환자들중에 일부는 오히려 이 GOT, GPT수치가 정상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단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의 진단을 받게되면 환자들은 흔히 불치의 병에 걸린것으로 생각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의 병에 대해 잘 이해를 하고 장기간 끝까지 간염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각오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만성 간질환의 활동기에는 충분한 안정과 식이요법 그리고 약물 요법을 그때 그때 적절히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만성간염이나 간경변증의 진단을 받게되면 흔히 불치의 병으로 좌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간염과 이기겠다는「자신의 각오」가 치료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진료사진은 特定사실과 관련없음).

한일약품

당뇨성 신경장해, 신경통으로 고생되십니까?
"비타메진"으로 생활에 자신을 가지십시오.

日本 三共社에서 개발한 비타메진은 당뇨병에 의한 당뇨성 신경장해, 신경통 치료제입니다.

당뇨환자의 80% 이상이 다음과 같은 당뇨성 신경장해 증상을 보입니다.

1. 팔다리에 무력감증,저림,근육통이 나타난다.
2. 시력이 떨어지며 물체가 이중으로 보인다.
3. 발기부전증이 나타나며 배뇨가 곤란해진다.

이런 증상은 신경조직의 손상이 원인이므로 신경조직을 재생시켜 주어야 개선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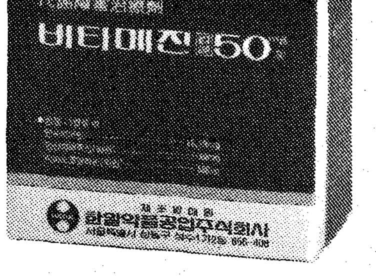
비타메진은 당뇨병으로 손상된 신경조직에 활력을 줍니다.

비타메진에는 당대사를 촉진하며 신경세포의 ATP대사에 작용하는 벤포티아민, 신경전달물질의 대사에 관여하는 염산 피리독신, 신경핵의 합성및 신경조직을 재생하는 시아노코발라민 등의 신경비타민이 고단위로 함유되어있어 당뇨성 신경장해, 신경통, 기타 소모성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래서 고단위, 약효도 다릅니다.

비타메진 50mg 1캅셀당 성분·함량
벤포티아민 ……………… 69.15mg
염산 피리독신 ……………… 50mg
시아노코발라민 ……………… 500μg

당뇨성 신경장해, 신경통, 기타 소모성질환 치료제
®비타메진 캅셀
표준소매가격 50mg, 100캅셀 22,000원



당뇨병과 합병증에 대한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신문명, 날짜, 제품명을 엽서에 적어 보내십시오.
100-60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18호
전화문의처 : 한일약품 학술과 서울464-0861 (교)584